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위기의 재생산구조” 속에서 한국경제와 기업이 가야할 길

2016. 6. 28.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인 호

진정한 여행(A True Travel)

나짐 히크메트(Nazim Hikmet)

터키, 1902-1962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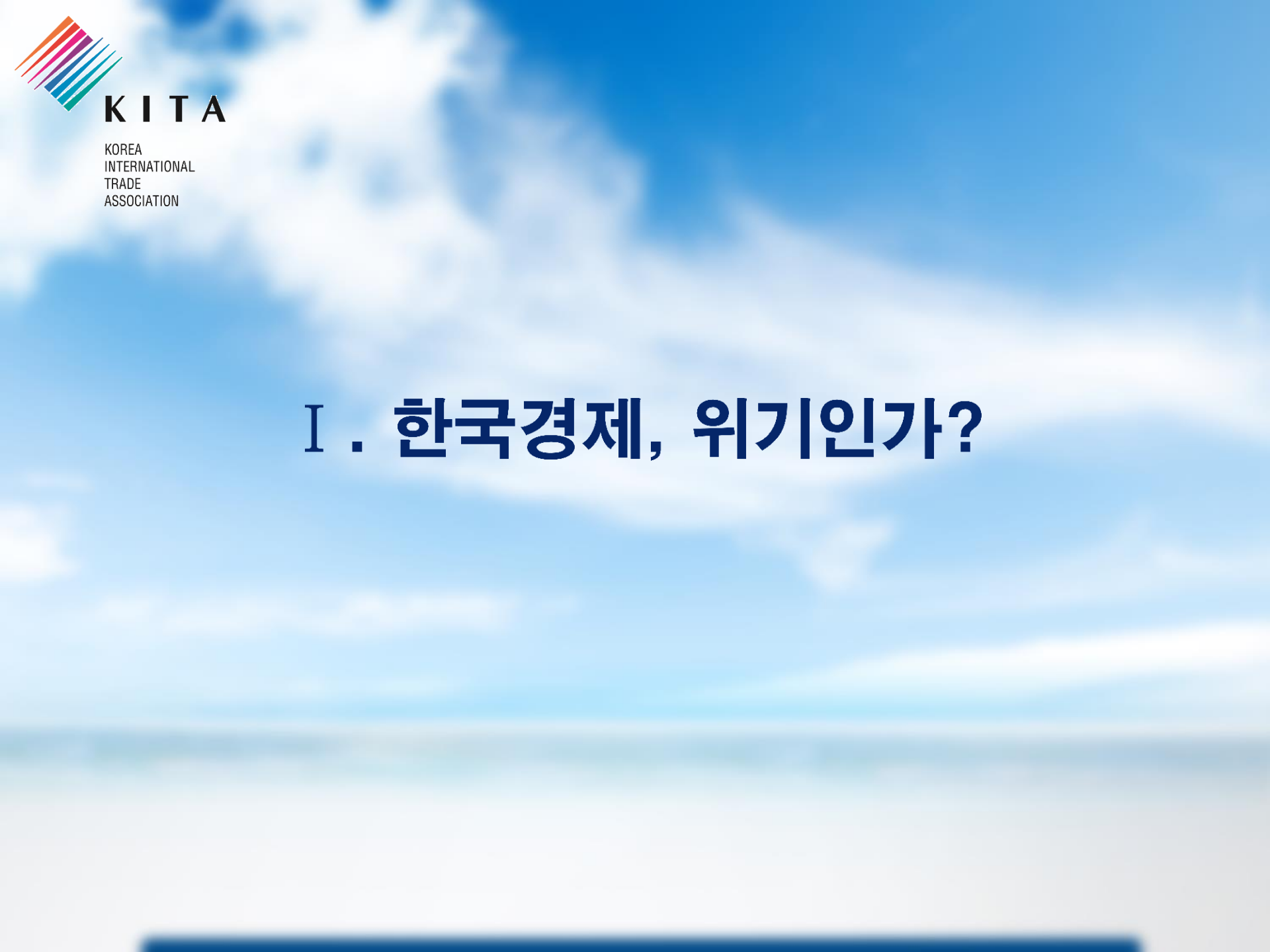
목 차

I . 한국경제, 위기인가?

II .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III .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IV .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 . 한국경제, 위기인가?

불확실성, 불가측성의 세계경제 환경

대증적 처방의 한계를 노출한 글로벌 경제



브렉시트와 세계경제의 향방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유럽과 세계경제

- 하나의 유럽에 대한 신뢰 상실로 EU 불확실성 확대
 - 안전자산 선호로 미 달러화, 일본 엔화 가치 급등
 - * 브렉시트는 이민자, 런던 은행가, EU에 대한 영국민의 시위 (제프리 삭스)
 - 세계경제 및 무역 회복에 부정적 영향 심화
 - *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앵거스 디턴)
- ↳ 한국의 對 EU, 對 영국 수출전략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신(新)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시그널

브렉시트에
대한 시각차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이
EU의 규제와 제약을 거부한 것

선진국 문턱에 멈춰선 한국경제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국경제 위기의식의 재생산 구조

■ 한국경제의 고성장 신화 → 2014년 GDP 1.4조 달러로 세계 13위

■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 → 2015년 경제성장률 2.6%

잠재성장률은 2014-2030 기간 중 2% 대 하락



■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 1)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 2) 부문 간(제조-서비스, 대-중소기업, 농업-비농업) 생산성 격차 확대
- 3) 웅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4)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약화

■ 한국무역의 성장 둔화 → 세계경제 성장 둔화, 국제유가 하락, 국내산업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과연 위기인가?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창업활동에 따른 중소기업 성장 정체

-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명목 노동생산성 비율 : 29.5%
(미국 39.6, 일본 37.8, 독일 60.4)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문제의 본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충분히 작동하는가?

- 시장보다 정부의 시그널에 의존?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경영패러다임에 대한 적절한 인식?
- 환경 변화가 내가 영위하는 사업과 직결된다는 투철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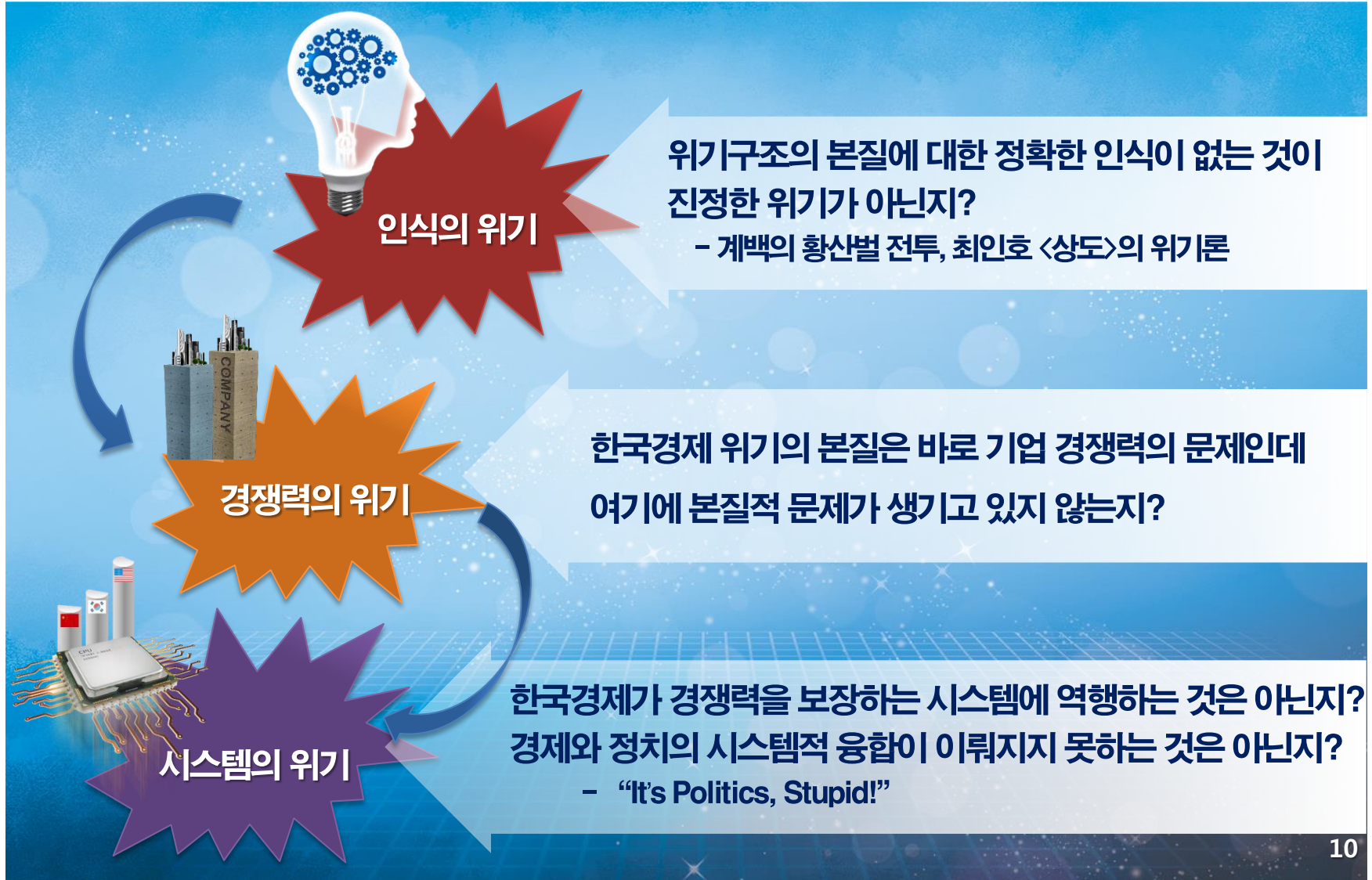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Ⅱ.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한국경제의 발전배경과 추가 잠재력

한국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

- 한국경제의 사회주의 경제화를 막은 역사적 사건
 -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등
- 시장경제의 성숙과정과 궤를 같이해 온 한국경제
- 개도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무역환경을 최대한 활용
 - GATT 체제 하 개도국 특혜, GSP, 최혜국 대우 등



저활용 · 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요인

-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과 ICT 산업
-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서비스업
-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
- 잠재력 실현에 유리한 세계경제 지형 변화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Ⅲ.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경제 (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

포용성장

경제의 각 부문이
공히 성장에 기여,
과실 공유



지속가능

재정 건전성과
복지 효율성의
균형 달성



G7 수준 인프라

기업과 산업이 세계경제의
선도자로서 위상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경제안정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대외 충격의
시스템적 관리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Back to the Basic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 엄격한 유인과 징벌의 원칙: “달란트의 비유”
-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
-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
 - 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 (P.Drucker)

왜 시장경제인가? – ①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벌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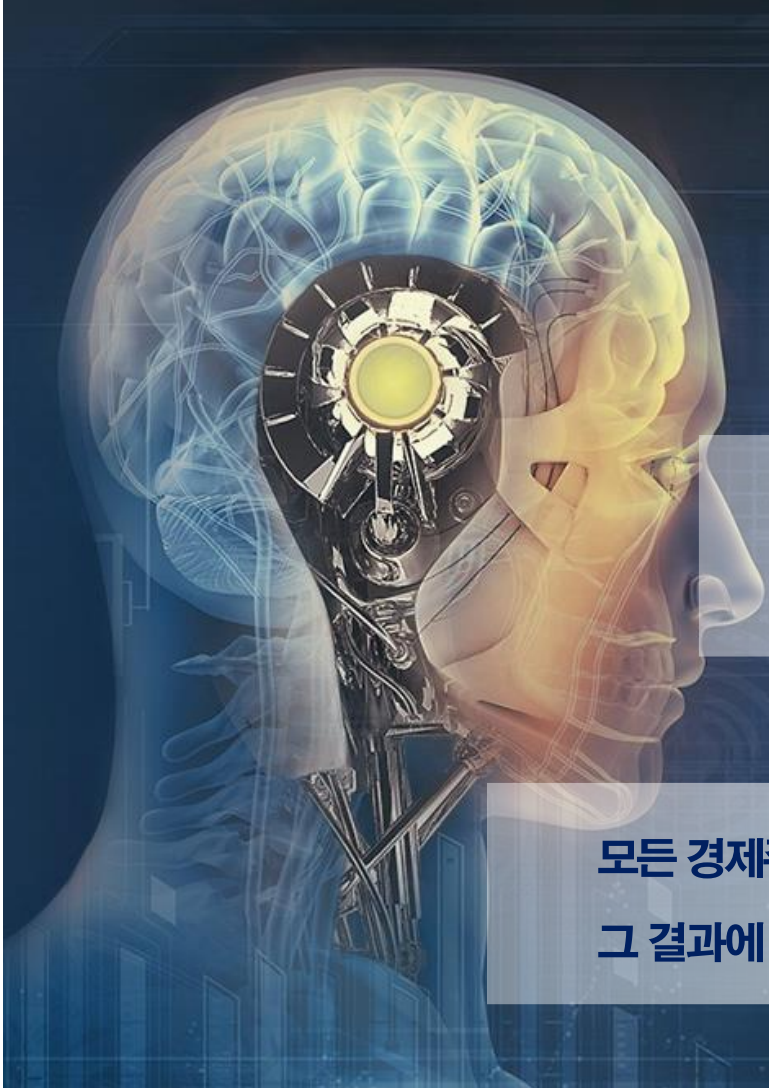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낸다.

이 어찌 도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 司馬遷, 「史記列傳」 중 貨殖列傳에서 발췌

왜 시장경제인가? – ②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빅데이터, AI, IoT, 가상현실(VR) 등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초지능의 혁명

산업, 경제, 사회 패러다임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단일이성으로의 대응은 불가능

모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다기적이고 자유로우며 유연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제로 가야 ➡ “시장경제”

왜 시장경제인가? - ③ 산학협력 vs 산학융합



산업, 기업,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의 시대
- 특정 업종만 한다는 생각은 구태의연(Google vs 삼성전자)

산학협력에서 산학융합으로 관점 전환의 필요성
(From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to Industry-Academic Convergence)

(현재) 産-學이 분리된 상태에서 협력

(미래) 産-學의 경계가 무너지고 양자가 융합

- 학교에서 창업이 이뤄지고, 산업 현장에서 교육이 일반화

왜 시장경제인가? - ③ 산학협력 vs 산학융합

정부주도형 산학협력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학교와 산업이 협력, 공존, 역할분담 →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융합 (교육제도, 커리큘럼의 학계 자율성 강화 등)

➡ “시 장 경 제”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V.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

- 1)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의 경제 사회 주도
- 2) 기업이 경제 제 과제의 해결주체
- 3) 기업의 글로벌, 혁신, 책임성 구현
- 4)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부정책과 제도
- 5) 성과지향 정부와 정부혁신
- 6) 기업 수용의 의식, 문화, 제도



**기업가형
국가 실현**

글로벌 기업가 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 - 마쓰시타 고노스케
-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
- 이사도어 샤프 (Fourseasons 호텔 회장)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로버트 솔러
- 부레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 오히려 경쟁력 있는 상어
- 정부의 「지원,보호」와 「규제」는 표리의 관계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감사합니다

